

강원LPG가스협회는 1985년에 설립되어 25년동안 강원도의 LPG산업발전을 위해 제도와 정책적인 건의에 앞장서 왔고 또한 회원사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어 그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회원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LPG 유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서민 연료 LPG를 보다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자연이 아름답고 깨끗하기로 유명한 고장으로 청정연료인 LPG의 보급·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소탱크가 되겠습니다.

강원LPG가스협회회장 안정신



청정연료 LPG보급 확대로 산소탱크될 터

강원LPG가스협회

금년부터 회원사의 보다 많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회원사 탐방”을 새롭게 구성하고 시·도협회 및 회원사를 소개하는 내용을 매 호마다 게재키로 했다. 앞으로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강원LPG가스협회는 85년 설립 이래 백영일초대회장('85~ '89)을 시작으로, 안정신회장 ('89~ '90) 유수훈회장(91. '05)을 거쳐 현재 안정신('05~현재)회장에 이르고 있으며, 정국진사 무국장이 회장을 도와 협회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강원지역에는 120여개의 LPG충전소가 산재해 있으며, 연간 판매량은 약46만톤으로 프로판, 부탄 각각 약13만톤, 약33만톤을 공급하고 있다. 110여개 충전소가 협회 회원으로 가입 · 활동하고 있고, 협회도 회원사의 기대에 부응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협회 사무실에 들어서자 사무실 벽면에 커다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청정연료 LPG 강원사랑! 서민연료 LPG 특소세 폐지로 경제연료 달성, 회원간 넘치는 사랑으로 한마음 단결” 등의 문구가 큼지막이 적혀 있었다.

또 하나 사무실 벽면을 타고나온 가스배관에 난방기를 연결해 사용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확인해보니 LPG배관 있었다. 정사무국장은 “2005년 겨울, 강원협회가 현재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제가 건물주와 협의해 건물전체에 LPG를 공급토록 했다” 고 했다. 협회 사무실에서도 강원사업자들의 LPG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강원협회는 프로판관련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시군 지역순회 회의 월 1회, 운영위원회 2회/년 등 다양한 회의 개최를 통해 업계현안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LPG사업자들의 보다 나은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한 그동안 강원도청과 지식경제부 등에 강력 건의하여 강릉, 화천, 양구지역 등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탱크로리에 의한 무차별적 LNG공급을 저지시킨 바 있으며, 아파트 LPG집단공급 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강원도 프로판사업자 10여명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한국에너지(주)를 협회가 운영하면서 충전사업자들이 직접 리조트 등에 LPG를 공급한다고 했다.

한편 매년 협회주관으로 사업자간 해외연수 및 단합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회는 사업자들에게 LPG산업 선진시스템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아울러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다.

2010년 중점추진사업으로 LPG신규수요 창출에 역점을 두는 한편 경제성 없는 지역 LNG공급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시장안정화와 대국민상대 LPG홍보 활동에도 힘을 예성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각 시군의 LPG담당자를 상대로 LPG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